

고은 불교 대하소설

두사람의 여행

언제 파도에 휩쓸려 죽을 고비를 넘겼던가 싶도록 우리는 어느 때의 내일로 돌아왔다. 그것은 아기를 낳을때의 그 모진 진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서 아기의 배냇저고에 빠져드는 어미의 기쁨과도 같은 것인가.

인답이 이런 우리를 예성강과 제물포 사이의 왕복선 선장으로로부터 넘겨받을 때 "소송이 저 남자를 신령스럽게 만들 작정입니다."라고 말한 바는 이제 실현되었다.

"..."

"스님! 예성강 전포나루 선장한테 빛이 있었지요?"

그때서야 인답이 1년전의 일을 떠올렸다.

"중은 있어 버리는 짐승인 모양이요. 그래요. 제물포 객주에 내가 갔을 2백냥의 빛이 있었지요."

"스님에게 그런 돈이 있었어요?"

"있다면 잊게 되고 없다면 없고..."

"별써 속임수입니다. 스님."

"제물포 객주에 가서 제 몸값 2백량을 내주기로 약조하셨지요?"

"그렇지. 그러니 간다면 내가 가야지."

딱히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히 가르친 적도 없다. 그저 눈치 있는 짐승이 며칠 사이에 다른 짐승의 세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의 타고난 기운이 이 섬의 수행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이 섬에 건너 온 이래 인답은 오래동안 차(茶)를 찾아다녔다. 이곳에 건너오기 전의 몇군데 절에서는 차공양에 제법 인이 박혔던 것이다. 그런 인답이 우리의 경지를 "진향(眞香)의 경지인가"라고 크게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차는 길과 속이 한결같은 순향(純香), 설악지 않고 지나치게 익어버리지 않는 청향(淸香), 불기운이 고르게 가해진 차를 난향(蘭香)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꼭두 무렵 이전에 따서 만든 차의 향기를 진향(眞香)이라 하였다.

차의 향기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 사향(四香)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진대 실로 차 1만잔은 맛보아야 하리라.

우리를 진향의 경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답인지라 그도 우리의 관계가 무척 걱정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우행자는 신령스러웠지... 내가 신령스럽게 만들겠다고 한 것은 군더더기였지..."

인답은 그 자신만으로 무욕도 수행을 할 때보다 한창 무르익어가는 젊은 여자와의 수행이 더 어려운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더 수행의 능도가 더 진한 것을 차츰 짐작하게 되었다.

호사 살 때의 무방비적인 편안함이 없었던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우리는 인답이 따라잡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마 그녀가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인답이 해염처럼 단장 구조할 수 없게 된 사실조차도 이런 수행을 뜻하는 것인지 모른다.

어느덧 두 사람의 동거는 1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섬에 건너 올 때마다 여러군 개팔의 쌀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개팔에서 우리가 영영 잃었을 때와 지금은 전혀 달랐다.

"스님!"

우녀가 무엇인가를 다짐 받으려는 듯이 인답을 숙연하게 불렀다.

"...우행자가 나를 불렀소?"

인답의 이같은 반문에는 끄덕하지 않고 다시 "스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다. 제 몸값이야 제 몸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는 것인지?"

"두고 보세요. 정 안되면 선장도 객주에 잔뜩 빚을 지고 있을 것이요. 요즘 객주라는 곳이 너절한 짓거리로는 보부상들의 등을 쳐먹고 크게는 세곡선(稅穀船) 선장들조차도 단단히 빚더미에 얽혀 바다 위에 띄워 둔 셈이요."

"우행자가 어찌 그런 일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오."

"이 무욕도에는 신선 하나와 갈매기 뿐이군요. 저는 신선이나 속이는 계집입니다. 호오"

그때였다. 인답이 이마에 땀이 배어나

감지 말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

"...그런데 두사람 저쪽 말뚝에 매어있는 소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주인께 돈헌냥을 빚지고 감지 않은 업보로 세번이나 소가 되어서도 아직 소 노릇을 다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당신들은 10만냥씩이나 떼어먹으려 하니 그 죄업이아말로 마칠 때가 없겠소그려'라고... 두사람은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중에 돈헌냥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 사람은 소를 풀어주며 '이 소는 지금으로부터 다시는 소의 몸을 받지 않게 하소서. 만약 빚진 것이 남았다면 뒷날 그같은 다른 이에게 보시(布施)하게 하소서.' 라고 축원까지 해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가 인간세상에 태어났습니까?"라고 인답이 물었다.

"아무렴 태어나고 말지요... 우리 돈 2백량을 갚으려 제물포로 갑시다."

"..."

이제 인답으로서의 그녀가 하지는대로



그림 · 최규일



수미산

오며 그녀의 난만한 돌을 깨어내버렸다.

"우행자"

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인답과 우녀의 나이 차이 20여세였으나 우녀쪽의 가슴에 방망이질이 시작되었다.

"내가 갔다 오겠오."라고 인답의 입에서 말이 나온 것은 훨씬 뒤였다.

여자의 몸은 이제 누군가가 버티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져버릴 것처럼 뼈의 역할이 없어져 있었다. 눈을 지긋이 감고 있었고 입술은 더욱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기어코 한마디 나와야 하였다.

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무는 가운데서 기왕의 인답이 우녀가 되고 그 우녀가 인답으로 바뀌어진 터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뒤 그들에게는 다시 며칠이 삭도(削刀) 칼날에 찔끔 손끝을 베어 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씩씩자나기버린 것이다.

새벽예불과 식전 좌선을 마치고 나서 인답이 아침공양의 죽을 끓이려고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우녀가 제지하였다.

며칠전부터 인답이 부엌일도 맡게 되었다. 우녀는 인답이 자청하는 일을 굳이 만류하지 않았다.

"오늘은 죽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씩

"함께 갔다 와요... 앞으로 함께 갈 곳이 어디 제물포 뿐이겠습니까? 함께 가요."라고 말하며 인답의 몸을 천천히 떼어놓았다.

이로부터 인답은 우녀의 영향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나날이 우녀의 관음과 기쁨은 무거워졌으며 그렇게도 표표한 무애로 살아온 인답이 그의 나이와도 상관없이 한참 여자에게 귀하고 있었다.

우녀는 그녀가 계룡산 마곡사나 동학사에서 내전(內典) 공부라도 한 것처럼 그녀가 읽어 본 적이 없는 <비유경(譬喻經)>의 소 이야기를 꺼냈다.

"스님. 옛날에 한 남정네가 돈을 벌어서 왔습니다. 어떤 두사람이 그 남정네한테 돈 1만냥을 꾸어쓰고 기한이 되어서 갚았다 합니다. 뒷날 두사람은 다시 모의하기를 각각 10만냥을 꾸어쓰고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무는 가운데서 기왕의 인답이 우녀가 되고 그 우녀가 인답으로 바뀌어진 터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뒤 그들에게는 다시 며칠이 삭도(削刀) 칼날에 찔끔 손끝을 베어 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씩씩자나기버린 것이다.

새벽예불과 식전 좌선을 마치고 나서 인답이 아침공양의 죽을 끓이려고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우녀가 제지하였다.

며칠전부터 인답이 부엌일도 맡게 되었다. 우녀는 인답이 자청하는 일을 굳이 만류하지 않았다.

"오늘은 죽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씩

"며칠전 스님께서 포용한 그 힘으로 우리는 몇백리를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스님의 애욕은 보살의 서원과 같으니까요."

우리는 몇백리를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스님의 애욕은 보살의 서원(誓願)과 같아 그 힘은 오래갑니다."

그들은 마치 무욕도에 서 첫나들이인 것처럼 어느 만큼 가슴 설레이면서

배를 매어둔 곳으로 갔다. 편만한 날씨로는 그 후미져 있는 바위 골짜기의 물은 파도의 여파(餘波)에는 넘보지 않게 고요하였다. 그곳에서 배는 무작정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 맑은 배는 물에 떠있는 그 기다림 자체가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대로 버려야 할 형편이었다. 벌써 노의 최구멍이 거덜나서 조심스레 노 젓는 데도 매우 불편하였다.

인답은 은연중 우녀에게 어떤 방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배를 바꾸는 일도 그렇거니와 제물포 객주에게 주어야 할 2백냥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이다.

"며칠전 스님께서 포용한 그 힘으로

개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년의 치열한 구도 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한마음 요전」에는 대행스님의 중생에 대한 사랑이 처절하리 만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유인의 길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는 만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와 중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라는 이름도, 중생이라는 이름도 모두 녹아든 자리입니다. 如如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바로 당신의 마음자리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과 함께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대행스님께서서 '말'속에 '장경'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이 곧 불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 생기 게 화두요
네 마음이 화두요
네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여벌의 삶은 없어도 다시 태어나는 삶은 있습니다.

• 불법의 진리 속에 다시 태어 나십시오.

"業으로 자신의 운명을 돌아 매려 하지 마라. 業이란 녹음 테이프와 같은 것 새 것을 입력하면 옛 것은 지워진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 · 독경을 착실히 한다 해서 생활 불교는 아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근본인 불성을 굳게 믿어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세계의 참 주인으로서의 삶을 뛰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른 생활 불교다."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 서점에 있습니다.

• 서울: 교보문고·영풍문고·종로서적·을지서적·서울문고(무악센터)·동화서적·월드북센터(신사역)·영동문고·종로문고·신촌문고·한가람문고·태평서적센터·세종문고(잠실 롯데백화점)·두레문고(노원역)·불교방송 구내서점·운주시 새 서울시대 불교서적 전문서점

• 전국 주요도시 불교서적 전문서점

• 기획·편집: 한마음 선원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62
전화: (0343) 72-3100, 1512

• 제작·공급: 도서출판 卍는 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 737-8881